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Policy Suggestions for Senior Employment Promotion Programs for Improving Life
Quality for the Elderly

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박경순

Dept. of Child Welfare, Woosuk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Park, Kyung-Soo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discover the deciding factors in senior employment program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The dependent variable used in this study was the quality of elderly persons. Personal and familial characteristics, and the community involvement of the elderly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in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irst, the most influential factor encouraging the elderly to participate in a senior employment promotion program was previous experience of senior employment programs.

Second, health condition, residence in city areas, experience of volunteer work, and knowledge of senior employment program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continuous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men and women. However, living arrangements had an effect solely on elderly men, and home ownership and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had effects solely on elderly women.

** 주저자, 교신저자 : 박경순(kwak1416@naver.com)

Third, the life quality of the elderly was affected differently by sex. Health condition had the greatest effect on male elderly persons, whereas, the effective variable, the composition of the family had the most effect on female elderly persons.

Thus, active campaigns through various mass media and information sessions are needed to promote participation in senior employment programs, according to the above mentioned deciding factors. In particular infrastructure providing the elderly with more volunteer work opportunity needs to be built for baby boomers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In addition, diversified senior employment programs are needed. Because the elderly living in city areas are more willing to participate in senior employment programs, specialized programs suitable for the elderly in city areas are needed. The government should also prepare programs that help the elderly stay healthy while they are working.

Key Words : 노인일자리사업(senior employment programs), 삶의 질(quality of life), 사회 참여(community involvement)

I. 서론

우리 사회의 노인문제는 1970년 이후부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고, 최근 고령화에 따라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최근 노인문제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평균 빈곤율은 16.5%인 반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빈곤율은 48.4%로 노인의 절반가량이 빈곤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인 13.5%의 4배 가까운 비중이다(통계청, 2013). 노인자살의 원인으로 신체 및 정신적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 즉 빈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인들이 겪고 있는 소외와 빈곤 문제 등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노인 고용과 관계된 연구는 2000년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연구가 고령자 취업을 위한 직종의

개발, 직업재훈련을 통한 고령자 고용 촉진, 전문 기능을 가진 고령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김미혜, 2000) 등으로 고령자 고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시행된 이후의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실태를 고찰한 연구(남기철·이문국·조성은·강성추·조준행, 2008; 남기철, 2012), 노인일자리사업 정책 효과성 및 참여자의 만족도, 삶의 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권치영·김선웅·임중철·이홍직, 2007; 초의수·강수영, 2008),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및 개선방안과 관련된 연구(남기철 외, 2008; 김진욱·손지윤, 2009; 김병덕·이석호, 2011; 김수원·한애리·이소정, 2012)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연구가 다수이고, 참여여부에 따른 효과성 비교연구(박영미·김병규, 2015)나 노인일자리사업에 지속적 참여의사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많은 노인 일자리와 사회 공헌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의

제공은 특정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이다(손화희, 2014).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듯 부모세대와는 다른 교육혜택과 다양화된 직업, 소득의 증가 등 경제적 풍요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비추어지나 내부적으로는 연령별 편차, 개인별 학력의 격차, 직업과 소득의 이질성 등으로 인해, 과거 노인과는 차별화된 욕구를 가지고 있다(곽인숙·홍성희 2013). 따라서 이들 베이비부머세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년기의 부족한 경제적 대비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논의는 매우 필요하며 긴급한 부분이다.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진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는 노인 개인에게는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소득의 확보로 경제적인 안정성, 신체적·정신적 건강함, 심리적 복지감, 자존감의 향상 등으로 건강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사회에는 부족한 젊은 노동력의 대체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생산연령인구의 노인 부양부담을 덜어주며, 사회보장비 지출을 억제하여 경제 성장을 위한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세대가 대량으로 노년기에 진입하게 되는 시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 의사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태와 유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2004

년에 도입되었으며,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은 첫째,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를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둘째, 노인 인력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를 도모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4). 한국의 노년층은 높은 근로의욕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인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야말로 노인들의 부족한 소득을 보조함과 동시에 적절한 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 복지정책의 핵심요소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남기철 외, 2008).

노인일자리사업은 크게 사회공헌형과 시장진입형으로 구분되는데,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참여노인 인건비와 부 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형태로써, 다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사업으로 나뉘는데, 공익형은 공공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업무영역(환경, 질서유지, 시설관리 등) 및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교육형은 경험과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가진 노인이 자신의 경륜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세대간 문화전승의 효과와 교육대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복지형은 사회서비스 중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여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된다(김진욱 외, 2009). 시장진입형 일자리는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에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운영된다. 시장진입형은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으로 나누어진다(보건복지부, 2014).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실적은 2004년 35,127개로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

년 노인일자리사업은 261,598개기) 창출 되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되었으나, 노인일자리에 참여한 노인들의 급여는 월 20만원 수준으로 자본의 보상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며 사회 임금으로서 복지를 실현할 수단적 의미도 약한 상태이다(손화희, 2014).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은 비교적 적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족도와 성취감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적 성격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문직 퇴직자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일 자체에 대한 보수는 없지만 활동경비 정도를 받는 유급형태의 일자리이다(김수원 외, 2012). 노인일자리사업 자체가 일반적으로 고령층, 저소득층이 대상이라는 특징을 공유하기는 하지만, 노인의 욕구와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여, 제한적 기간과 일을 통해 정해진 월 20만원의 급여를 연 7개월 받는 한정적이지만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되는 공공분야 일자리는 안정적인 생계비에 대한 욕구가 강한 노인들이 참여하며, 시장형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젊고, 노동능력이 우수하고 보다 나은 소득을 희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삼는다. 비경제적 사회참여욕구가 강한 노년층은 전문형(순수) 자원봉사를 선택하는 반면 자신의 신체적 능력과 경제적 욕구가 강한 노년층은 시장근로형 일자리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남기철, 2012). 또한 노인의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여 교육수준 및 경제수준이 낮은 농촌노인들은 활동 지향적인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높은 반면 도시지역의 경우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대상에 따른 적절한 유형의 일자리제공이 필요하다(이지영·성도경, 2014).

이와 같이 노인일자리의 유형에 따른 특성이 상이하므로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능력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노인일자리에서 추구하는 목표,

노인의 경제상태, 노인의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대비한 다양한 일자리 유형의 창출이 요망된다.

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선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노인의 경제수준(소득수준)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로연금수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음으로는 자격증 유무, 경력 및 전문성이 선발기준이 되기도 한다(하세운·이현미, 2013). 지금까지는 처음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주로 지인을 통한 경로가 가장 많았고, 이용하던 기관을 통해 정보를 얻게 된 경우가 많아(하세운 외, 2013; 하경분·주민경, 2013),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지속적 참여에 가장 큰 영향요인은 급여액으로,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제선·김선용, 2014). 그러나 현재의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경험이나 참여만족도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성별, 연령, 건강상태 등도 영향을 미쳐 남성일 경우, 연령이 젊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지속적인 참여를 희망했다(권구영·최정민, 2007; 김진욱 외, 2009; 김제선 외, 2013; 하세운 외, 2013).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에 따라라도 참여를 지속하는 요인에 차이를 보여 사회공헌형의 경우는 건강상태와 경제상태, 시장형의 경우는 성, 주거형태, 참여이유 등이 지속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형에 비하여 교육형, 인력파견형, 복지형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참여

1) 공익형 150,298개, 교육형 28,137개, 복지형 49,004개, 시장형 17,685개, 인력파견형 10,397개

만족도가 더 높았는데 이들의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김진옥 외, 2009; 하세운 외, 2013).

노인의 연령이 젊을수록 사회공헌형보다는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속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젊고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좀 더 적극적인 소득창출을 희망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김진옥 외, 2009; 김제선 외, 2013). 이는 사회공헌형은 연중 참여기간이 7-9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며, 월 급여수준이 20여만원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젊은 노인층의 취업 및 경제안정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참여 노인들의 평균 연령이 75세로 고령인구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 근로와 안정된 소득을 희망하는 60대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전문직 은퇴자 등을 위한 일자리의 질적 제고와 함께 고부가가치의 시장형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박영미 외, 2015).

이상의 결과를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수준과 같은 경제적 조건(급여액), 개인의 건강상태,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 즉, 경제적 이득과 함께 보람이나 자존감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유형 여부,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경험, 참여만족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노인일자리사업에서는 유형에 따라 급여액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금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충족감이나 자존감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일자리창출로 참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3. 노인의 삶에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삶의 질이란 용어는 1930년대 후반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과학자들에 의해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그 후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각 연구자마다 개념을 다

르게 정의하고 있다. 삶의 질이란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 될 수 있으며, Havinghurst(1968)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에 대한 ‘주관적 느낌과 생각’이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였고, 인간의 삶은 개인의 생물학적 삶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정신적 삶 등 매우 다양하며, 행복, 만족, 긍정적 정서, 사기 등의 개념이 내포된 주관적 안녕이며, 한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개인의 현재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이 중요하다(고승덕·조숙행, 1997; 백선숙, 2005).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노년기가 연장된 노인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만족스럽게 보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 있어 노인의 삶의 질을 안녕감, 만족도, 행복감 등으로 측정하기도 하고, 복지, 생활수준 같은 유사 개념의 용어를 사용해 왔으며, 노인의 건강, 사회적 자원, 심리적 자원, 경제·환경적 요인에서의 심리적 복지감을 노인의 삶의 질로 간주하였다(김애련, 2001).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종교유무, 교육정도, 배우자유무, 가족형태, 생활활력, 행복감, 자아존중감, 실패감, 열등감, 여가활동유무, 직업 요인 등이었으며(고승덕 외, 1997). 소득이 많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만족하고 있으며, 결혼상태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남성노인은 배우자와 동거할 때 더 만족했으나, 여성노인들은 동거여부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정명숙, 2007).

노인의 경우는 개인의 활동보다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의한 영향력이 컸으며, 이웃의 지원수준과 심리적 요인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비노인의 경우는 사회인구학적 요인보다 개인의 여가활동·봉사활동이 삶의 만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노인에게서 활발한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의 기회를 통한 행복한 삶이 기대되므로(곽인숙, 2011), 노인의 연령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내용도 변화되어야 한다.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군은 심리 변인군과 가족관계 변인군으로, 노인의 건강상태, 일상생활수행능력, 우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부부관계, 자녀와의 친밀감, 친구 및 이웃지지, 사회적지지, 여가참여, 사회활동참여가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신성일·김영희, 2013).

이상과 같이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과거에는 개인의 신체적 건강, 질병, 경제적 상태 등이 중요요인이었으나 최근에는 사회활동, 봉사활동, 이웃지지, 사회적지지, 여가참여 등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노인의 성별에 따라 영향 요인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와 노인의 삶의 질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는 노동현장에 참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나 자존감이 고취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노인일자리사업이 보충적 소득보장이라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증대시킴으로써 신체적 건강의 증진, 개인적 만족감, 심리적·정서적 안정감, 사회적 책임감, 대인관계 등이 증대되는 효과를 줄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인 노화와 우울감의 축소, 자기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노년기의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지은구, 2009; 홍석관, 2005; 권구영 외, 2007; 권치영 외, 2007; 김효정, 2008; 초의수 외, 2008; 김소향·이신숙, 2009; 이소정, 2013; 이지영 외, 2014).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이 비참여노인에 비해 친구 및 이웃 접촉빈도가 높았으며, 단체활동 참여일수도 많았으며, 비공식적 사회관계보다 공식적 사회관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으며,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네트워크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냈다(이소정, 2013).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노인의 경제적 안정에의 기여, 심리적 복지감의 증진, 주관적 경제상태의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한국 노인의 경우 경제적 만족감 등 주관적 변수가 객관적 변수보다 삶의 질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는 주관적 경제상태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결국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한석태, 2008; 박영미 외, 2015).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소득을 통한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영향은 소득창출이라는 물질적 획득 이상의 심리적 안정감, 심리적 복지감, 자존감, 주관적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향상 등으로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 효과는 노인 개인에게는 소득증진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증진으로 인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부양대상이 아닌 생산성을 지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해졌으며, 사회적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으로 야기된 사회적 부양비용, 복지비용의 절감 효과와 국가의 생산성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사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적 자원, 가족적 자원, 사회참여 자원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노인의 삶의 질은 성별에 따라 상반된 영향을 보이고 있어 성별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사와 노인의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인의 개인적 자원, 가족적 자원, 사회참여 자원은 남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노인의 삶의 질과 노인일자리사업참여 의사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4> 노인의 삶의 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2.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2011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국적으로 조사된 노인 15,146명 중 본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노인 10,05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종속변수로는 노인의 삶의 질로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3개 항목(자신의 건강상태, 자신의 경제상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

<표 1>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삶의 질(3)	건강상태, 경제상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1=전혀 만족하지 않음 2=만족하지 않음 3=그저 그렇다 4=만족 5=매우 만족
독립변수 개인적 자원 성별 연령 교육수준(년) 주관적 건강상태 종교유무 가족적 자원 가구형태 연간총소득(만원) 주택소유 주관적 생활수준 거주지역 사회참여 자원 노인일자리사업참여경험 노인일자리사업인지 자원봉사활동경험 현재경제활동참여 노인일자리사업참여의사	1=남성 0=여성 만 나이 교육받은 연수 1=매우 나쁨 2=나쁨 3=보통 4=대체로 좋음 5=매우 좋음 1=종교 있음 0=종교 없음 1=노인독거가구 2=노인부부가구 3=자녀동거가구 지난 1년간 가족의 총소득 1=자가 0=임차 1=하층 2=중하층 3=중류층 4=중상류층 5=상류층 1=도시지역 0=농촌지역 1=사업에 참여 0=사업에 비참여 1=알고 있다 0=모른다 1=자원봉사활동 경험 0=자원봉사활동 경험 없음 1=현재 경제활동 0=현재 경제활동하지 않음 1=노인일자리사업 참여희망 0=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의사없음

족의 3문항)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노인의 삶의 질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독립변수로는 개인적 자원(성별,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종교유무), 가족적 자원(가구형태, 연간 총소득, 주택소유, 주관적 생활수준, 거주지역), 사회참여자원(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 노인일자리사업 인지, 자원봉사활동경험, 현재 경제활동참여, 미래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사) 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3.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을 통해 파악하였고, 노인의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개인적 자원과 가족적 자원, 사회참여 자원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T-test 분석, 또한 이들 독립변인들이 미래의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의사를 예측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자원, 가족적 자원, 사회참여 자원의 특성

조사대상자 중 남자는 4317명(42.9%), 여자는 5737명(57.1%)로 여성의 비율이 약간 많았으며, 전체 분석대상자는 10,054명이었다(표 2). 연령은 조사대상자중 70-74세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65-69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은

5.8%였다. 연령은 남자의 평균연령이 여자보다 낮았으며, 74세 이하의 분포는 남자의 비율이 높고, 75세 이상은 여자의 비율이 높았다($p<.001$).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 3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고등학교 졸업, 공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도 31.7%나 되어 교육수준이 매우 낮았으며, 특히 무학이면서 문맹인 경우도 10.8%나 되었다. 특히 여자노인의 문맹비율은 17.3%로 매우 높았으며, 평균적인 교육기간은 6.15년이지만 여성의 교육기간은 평균 4.33년이었다.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가 조사대상의 반 정도인 50.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이 28.3%, 노인독거가가 20.8%로 노인끼리만 생활하는 노인가구가 전체의 72%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여성독거가구비율이 31.1%로 매우 높았다. 조사대상가구의 지난 1년간 가족총소득은 평균 2156만원 정도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표준편차가 2089만원으로 가구당 소득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가구소득은 평균 2011만원으로 남자보다 낮았다. 주택소유비율은 자가인 경우가 74.6%로 높았으며, 여자의 임대주택 거주율은 29.3%로 남자보다 높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균 2.85점으로 보통수준인 3점보다 약간 나쁜 편이었으며, 여자의 건강상태가 더 나빴다. 주관적 생활수준은 평균 2.5점으로 중하류와 중류층의 중간정도로 인지하고 있으며, 여자 노인이 더 낮았다. 거주지역은 도시지역이 67.5%, 농촌지역이 32.5%였으며, 여자노인이 농촌지역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65.4%로 없는 노인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노인의 경우 74.3%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성별에 따라 사회참여자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참여경험이 없는 노인이 83.4%로 많았으며, 특히 여자노인의 경우 참여경험이 없는 경우가

〈표 2〉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자원, 가족적 자원, 사회참여자원의 특성

(N=10,054)

		N(%)	남자N(%)	여자N(%)	F값
성별	남자	4317(42.9)			-
	여자	5737(57.1)	-	-	
연령	65-69	2945(29.3)	1395(32.3)	1550(27.0)	67.128***
	70-74	3083(30.7)	1351(31.3)	1732(30.2)	
	75-79	2318(23.1)	969(22.4)	1349(23.5)	
	80-84	1122(11.2)	398(9.2)	723(12.6)	
	85+	587(5.8)	204(4.7)	383(6.7)	
교육수준	무학(문맹)	1088(10.8)	99(2.3)	990(17.3)	1949.14***
	무학(글자해독)	2098(20.9)	446(10.3)	1652(28.8)	
	초등학교졸업	3573(35.5)	1458(33.8)	2115(36.9)	
	중고등학교졸업	2589(25.8)	1757(40.7)	832(14.5)	
	전문대 이상	705(7.0)	557(12.9)	148(2.6)	
가구형태	노인독거가구	2087(20.8)	300(6.9)	1786(31.1)	1147.18***
	노인부부가구	5120(50.9)	2930(67.9)	2190(38.2)	
	자녀동거가구	2847(28.3)	1087(25.2)	1760(30.7)	
주택소유	임대	2556(25.4)	874(20.2)	1682(29.3)	106.95***
	자가	7498(74.6)	3443(79.8)	4055(70.7)	
거주지역	도시	6790(67.5)	2962(68.6)	3828(66.7)	4.004*
	농촌	3264(32.5)	1355(31.4)	1909(33.3)	
종교유무	유	6577(65.4)	2315(53.6)	4263(74.3)	465.81***
	무	3476(34.6)	2002(46.4)	1474(25.7)	
자원봉사참여여부	참여	952(16.6)	665(15.4)	645(11.2)	37.603***
	비참여	4784(83.4)	3652(84.6)	5091(88.8)	
일자리사업인지	인지	6894(68.6)	3267(75.7)	3628(63.2)	176.884***
	모른다	3159(31.4)	1050(24.3)	2109(36.8)	
일자리사업참여경험	참여	749(7.5)	325(7.5)	424(7.4)	N.S.
	비참여	9304(92.5)	3992(92.5)	5312(92.6)	
현재 경제활동	활동중	3418(34.0)	1861(43.1)	1558(27.2)	279.302***
	비활동	6635(66.0)	2456(56.9)	4179(72.8)	
		평균(표준편차)	남자	여자	T값
연령(세)		73.66(6.078)	73.09	74.08	-8.258***
교육수준(년)		6.15(4.796)	8.56	4.33	48.574***
연간총소득(만원)		2156.57(2089.94)	2349.76	2011.19	8.066***
주관적 건강상태(5점)		2.853(1.020)	3.0593	2.6973	17.681***
주관적 생활수준(5점)		2.50(0.765)	2.58	2.43	16.578***

* p<.05 ** p<.01 *** p<.001

88.8%나 되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인지도 부를 묻은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68.6%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지 비율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여자노인의 인지도가 약간 낮았으나 과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은 7.5%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은 평균 34% 정도였으며, 남자노인의 비율이 여자 노인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전반적으로 여자 노인의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은 낮으며, 소득수준도 낮고,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고, 임대주택 거주비율이 높았으며, 건강상태가 나쁘고, 주관적 생활수준도 낮고, 농촌지역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어, 남자노인보다 개인적 자원과 가족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비율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일자리사업에 대한 인지도,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 현재 경제활동 비율이 남자노인보다 모두 낮아 사회참여 자원 역시 여자노인이 더 열

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노인의 성별에 따른 삶의 질과 노인일자리 참여의사

노인의 삶의 질 하위항목인 건강만족수준은 평균 2.835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약간 낮았으며, 경제만족은 평균 2.654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자녀관계 만족은 평균 3.663점으로 가장 만족하는 항목이었다. 세 가지 항목의 합산인 삶의 질 총합수준은 평균 9.236점이었으며, 모든 항목에서 남자 노인이 더 만족수준이 높아 삶의 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참여의사는 희망하는 비율이 17.9%로 여자보다는 남자노인의 참여희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p<.001).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희망하는 참여유형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 남자노인은 교육형과 시장형, 인력과견형을 선호하였으며, 여자노인은 공익형과 복지형에 대한 희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 성별에 따른 삶의 질과 노인일자리 참여의사

(N=10,054)

		평균(표준편차)	남자	여자	T
삶의 질 하위영역	자신의 건강만족	2.835(1.055)	3.082	2.649	20.475***
	자신의 경제만족	2.654(.897)	2.745	2.585	8.855***
	자녀관계 만족	3.663(.854)	3.696	3.638	3.437***
삶의 질 총합		9.236(1.939)	9.586	8.969	15.719***
		전체	남자(4317)	여자(5737)	χ^2
노인일자리 참여의사	희망	1799(17.0)	847(19.6)	952(16.6)	15.322***
	희망 않음	8254(82.1)	3470(80.4)	4784(83.4)	
		전체(1799)	남자(847)	여자(952)	χ^2
노인일자리사업 희망유형	공익형	1388(77.3)	635(75.3)	751(79.7)	18.797***
	교육형	86(4.7)	56(6.6)	29(3.1)	
	복지형	189(10.5)	80(9.5)	108(11.4)	
	시장형	26(1.5)	17(2.0)	9(0.9)	
	인력과견형	108(6.0)	55(6.5)	52(5.5)	

* p<.05 ** p<.01 *** p<.001

전반적으로는 공익형에 대한 선호가 77.3%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현재까지 노인일자리아업에서 주로 공익형의 일자리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노인일자리아업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일자리아업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참여의사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적, 가족적, 사회참여 자원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logistic 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표 4).

노인일자리아업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logistic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정확도는 86.5%였다. 이 모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가구형태, 연간총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생활수준, 거주지역, 노인일자리아업 참여경험, 자원봉사활동경험, 노인일자리아업 인지, 현재 경제활동참여 등이었다. 이들 변인중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과거 노인일자리아업에 참여경험으로 경험이 있는 노인의 경우 25.731배 노인일자리아업에 참여의사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거주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 참여의사가 2.105배, 일자리아업인지하는 경우 1.729배, 자원봉사활동경험이 있는 경우 1.476배,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참여의사율이 1.362배 증가하였으며, 또한 성별이 영향을 미쳐 남자노인이 1.228배 참여의사율이 높았다. 그러나 연령, 주택소유, 주관적 생활수준은 참여의사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수준과 종교유무 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노인의 노인일자리아업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logistic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류정확도는 84.8%였다. 이 모형에서 과거 일자리참여경험이 가장 강한 영향

을 미쳐 경험이 있는 남자노인의 경우 30.385배 노인일자리아업에 참여의사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는 거주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 농촌지역보다 참여희망비율이 2.027배 높았으며, 자원봉사활동경험, 주관적 건강상태와 노인일자리아업 인지는 참여의사가 높이는 요인이었다. 가구형태는 노인독거이거나 노인부부일 때 각각 39.4%, 47.6%씩 참여희망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주관적 생활수준은 양호할수록 참여의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수준, 주택소유, 종교유무, 현재 경제활동참여여부 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노인의 노인일자리아업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logistic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류정확도는 87.7%였다. 이 모형에서 참여의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과거 노인일자리아업 참여경험으로 경험이 없는 노인보다 21.986배 참여희망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는 거주지역으로 도시지역인 경우 농촌지역보다 참여희망비율이 2.258배 높았다. 다음으로는 노인일자리아업 인지, 현재 경제활동참여, 자원봉사활동경험은 참여의사비율을 높였다. 연령과 주택소유, 주관적 생활수준은 참여의사를 감소시켰으며, 여자노인의 경우는 교육수준, 가구형태, 종교유무 등은 노인일자리아업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노인일자리 참여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노인 공통으로 일자리아업참여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과거의 노인일자리아업 참여경험으로, 일자리아업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는 하세운 외(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또한 건강상태, 도시지역 거주, 노인일자리아업 인지, 자원봉사경험 등이 정적 영향요인이었으며, 부적 영향요인으로 는 연령과 주관적 생활수준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생활수준을 높게 인지할수록 참여희망비율이 낮

아지는 것 등은 기존연구들(하세윤 외, 2013)과 일치하고 있다. 자원봉사경험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진옥 외(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교육수준과 종교유무는 남녀 노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주택소유, 현재경제활동여부 등은 여자노인에게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가구형태는 남자노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노인의 경우 자기 집에 거주하는 경우 참여희망이 적었으며,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참여희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자노인은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보다 노인독거가구나 노인부부가구일 때 참여희망비율이 낮아졌다.

4.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개인적 자원, 가족적 자원, 사회참여 자원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분석 결과 전체 노인의 경우 이들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60.6%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다음으로는 노인부부가구, 주관적 생활수준, 노인독거가구, 성별, 주택소유, 연간총소득, 교육수준, 연령, 자원봉사활동경험, 현재경제활동, 거주지역, 노인일자리사업인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사, 종교유무 등이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

〈표 4〉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의사에 대한 Logistic regression

(N=10,054)

	남자			여자			전체		
	P.E.	S.E.	Exp(B)	P.E.	S.E.	Exp(B)	P.E.	S.E.	Exp(B)
성별	-	-	-	-	-	-	.205**	.074	1.228
연령	-.065***	.009	.937	-.109***	.009	.897	-.088***	.006	.916
교육수준	.004	.011	1.004	-.021.	.012	.979	-.006	.008	.994
주관적 건강상태	.393***	.048	1.481	.241***	.046	1.273	.309***	.033	1.362
종교유무 ^D	-.040	.091	.960	-.015	.100	.985	-.023	.067	.977
가구형태 ^D 노인독거	-.502**	.202	.606	.023	.138	1.023	-.206*	.107	.814
노인부부	-.647***	.118	.524	-.166	.123	.847	-.405***	.085	.667
연간총소득(만원)	.000***	.000	1.000	.000**	.000	1.000	.000***	.000	1.000
주택소유 ^D	-.090	.114	.826	-.346***	.096	.707	-.257***	.073	.773
주관적 생활수준	-.588***	.070	.555	-.350***	.066	.704	-.467***	.048	.627
거주지역 ^D	.706***	.118	2.027	.814***	.109	2.258	.744***	.079	2.105
일자리참여경험 ^D	3.414***	.164	30.385	3.090***	.142	21.986	3.248***	.078	25.731
일자리사업인지 ^D	.333**	.115	1.395	.718***	.107	2.050	.548***	.085	1.729
자원봉사활동경험 ^D	.466***	.117	1.594	.302*	.125	1.353	.389***	.071	1.476
현재경제활동참여 ^D	-.062	.100	.940	.428***	.099	1.534	.172*	.107	1.188
상수	3.206 .734			5.392 .733			4.266 .511		
Log Likelihood	3291.414*** (84.8%)			3761.932*** (87.5%)			7123.831*** (86.5%)		

* p<.05 ** p<.01 *** p<.001

호할수록, 노인부부가구일 때, 주관적 경제상태가 양호할수록, 남성노인인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 연간총소득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삶의 질 수준이 높아졌으며, 노인독거가구인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도시지역에 거주할 경우,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집단이 삶의 질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노인의 경우 이들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57.2%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의 영향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가구형태 중 노인독거가구, 주관적 생활수준, 노인부부, 연간총소득, 주택소유, 종교유무, 자원봉사활동경험, 현재경제활동, 교육수준, 거주지역, 연령, 노인일자리사업 인지 등이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남자노인의 삶의 질에는 주관적 건강상태의 영향이 가장 커서 건강할수록 삶의 질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이동호, 2010)와 일치하고 있다. 주관적 생활수준을 높게 인지할수록, 자녀동거가구보다는 노인부부만으로 구성된 노인부부가구일 경우, 연간총소득이 많을수록, 자가에 거주할 경우,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혼자 사는 노인독거가구인 경우 자녀동거가구보다 삶의 질 수준이 낮았으며, 거주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 노인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삶의 질 수준이 낮아졌다.

여자노인의 삶의 질에는 가구형태중 노인부부가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는 주관적 생활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희망, 노인독거, 연령, 교육수준, 주택소유, 연간총소득, 거주지역, 노인일자리사업인지, 자원봉사활동경험, 종교유무가 유의미한 변인인 것

로 밝혀졌다. 여자노인의 삶의 질에는 가구형태의 영향이 가장 커서 노인부부가구일 경우, 주관적 생활수준을 높게 인지할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 연간총소득이 많을수록,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삶의 질 수준이 높아졌다. 반면 혼자 사는 노인독거가구일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도시지역에 거주할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 삶의 질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자노인의 경우 노인부부가구일 때 가장 삶의 질이 높았으며, 현재 경제활동여부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들에서 차이를 볼 수 있다. 또한 종교의 영향은 남녀노인에게서 상반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어, 남자 노인에게는 종교가 정적인 영향을, 여자 노인에게는 부적 영향을 보이고 있다.

남녀노인의 삶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은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생활수준, 노인일자리사업인지, 자원봉사활동경험 등으로 기존연구들(정순돌·이은주, 2005; 이동호, 2011)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녀노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은 연령, 노인독거가구, 거주지역 등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경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상대적으로 삶의 질 수준이 낮았는데 이 결과는 기존연구들(한석태, 2008; 박인숙 외, 2013)과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조사대상자들의 분석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이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거의 연구들(박영미 외, 2015; 김수영·이민홍·장수지, 2014)에서 노인일자리사업참여의 효과로서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가 증진되었다는 결과와는 차이

를 보이는데 이는 본 조사대상 노인들중 노인일 자리 참여비율이 7.5%로 너무 적었기 때문이며, 주로 공익형으로 선정되었던 노인은 경제적 조건에 의해 선정되었기 때문에 가장 삶의 질이 낮았던 노인들이어서 삶의 질 향상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남녀노인 모두 노인독거가구일 때 삶의 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혼자 사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해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망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와 노인일

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의사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노인의 개인적 자원, 가족적 자원, 사회참여 자원 등을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여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 노인이 남자노인보다 개인적 자원과 가족적 자원, 사회참여 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다.

둘째, 노인의 삶의 질 수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참여의사 모두 여자보다 남자가 높았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 남자노인은 교육형과 시장형, 인력과 견형을 선호하였으며, 여자노인은 공익형과 복지

〈표 5〉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0,054)

	남자 B(β)	여자 B(β)	전체 노인 B(β)
성별	-	-	.603(.087)***
연령	-.015(-.027)**	-.039(-.073)***	-.033(-.059)***
교육수준	.019(.028)*	.057(.072)***	.044(.061)***
주관적 건강상태	1.180(.397)***	.896(.264)***	1.016(.302)***
종교유무D	.332(.053)***	-.130(-.017)*	.098(.014)*
가구형태D 노인독거	-3.858(-.314)***	-.709(-.100)***	-1.516(-.179)***
노인부부	.820(.123)***	2.732(.404)***	1.920(.279)***
연간총소득(만원)	9.974E-5(.063)***	.000(.065)***	.000(.062)***
주택소유D	.445(.057)***	.484(.067)***	.533(.068)***
주관적 생활수준	1.111(.270)***	1.204(.279)***	1.144(.255)***
거주지역D	-.180(-.027)*	-.196(-.028)**	-.221(-.030)***
일자리참여경험유무D	-.084(-.007)	-.025(-.002)	-.110(-.008)
노인일자리사업인지D	.185(.025)**	.160(.023)**	.148(.020)**
자원봉사활동경험D	.450(.052)***	.203(.020)*	.371(.036)***
현재 경제활동 참여 D	.248(.039)***	.096(.013)	.217(.030)***
노인일자리사업참여희망D	-.098(-.012)	-.257(-.209)**	-.130(-.015)*
상수	9.132***	9.529***	9.332***
R2(Adj. R2)	.573(.572)	.583(.582)	.607(.606)
F값	384.768***	534.013***	968.602***

* p<.05 ** p<.01 *** p<.001

형에 대한 희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남녀노인 공통으로 일자리사업참여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과거의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경험으로,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 참여의사가 높았다. 건강상태, 도시지역 거주, 노인일자리사업 인지, 자원봉사경험 등이 정적 영향요인이었으며, 부적 영향요인으로는 연령과 주관적 생활수준이었다. 교육수준과 종교유무는 남녀 노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주택소유, 현재경제활동여부 등은 여자노인에게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가구형태는 남자노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인의 삶의 질에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다음으로는 노인부부가구, 주관적 생활수준, 노인독거가구, 성별, 주택소유, 연간총소득, 교육수준, 연령, 자원봉사활동경험, 현재경제활동, 거주지역, 노인일자리사업인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사, 종교유무 등이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노인의 성별에 따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랐는데, 남자노인의 삶의 질에는 주관적 건강상태의 영향이 가장 컸으며, 여자노인의 경우는 가구형태의 영향이 가장 컸다. 현재 경제활동여부는 남자노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여자노인에게 4번째로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의 영향은 남녀노인에게서 상반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어, 남자 노인에게는 종교가 정적인 영향을, 여자 노인에게는 부적 영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이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 효과로서 주관적 건강상태와 경제상태, 자아존중감의 향상, 우울감의 감소, 인간관계 및 생활만족도의 향상으로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할 때, 향후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언하자면 첫째, 노인일자리사업은 노년기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이지만 현재는 일부 노인에게만 기회가 제공되므로 일자리사업의 경험기회가 적어 전반적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 어렵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인들에게 사업참여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참여대상자 선정시 경제적인 조건만으로 선정하지 말고, 참여희망자에 따라 적절한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이 가장 큰 영향요인이며, 일자리사업에 대한 인지와 자원봉사활동의 경험 등이 참여비율에 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요망된다. 노인들의 왕래가 많은 경로당이나 노인회 등을 통한 홍보활동의 강화와 대중매체 특히 TV나 라디오와 같은 매체를 잘 활용한 홍보방법의 개선, 상담센터를 운영·설치를 통한 노인들이 보다 쉽게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동기중 경제적인 목적을 가진 경우가 가장 많고, 특히 농촌노인, 고령의 여성노인의 경우 안정적인 생계비 마련을 위한 참여 희망이 많으므로 안정적인 생계비 마련을 위한 임금수준의 확보가 절실하다. 현재의 임금수준은 너무 낮아 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정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기 진입으로 고학력,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노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환경개선사업과 같은 단순 일자리는 노인들의 전문성과 재능을 살리지 못하므로 노인의 경륜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형, 인력과연형 등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과 같은 사회참여 경험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줄 수 있으므로 소일거리를 위한 사업참여나 사회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활동 경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자원봉사활동의 기회를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도시와 농촌 지역에 따라 대상자의 특성이 다르고 노동환경도 다르므로 지역거주자에게 적절한 노인일자리의 마련이 요망된다.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남자노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교육형과 시장형 일자리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으므로 도시지역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와 비참여자간 횡단적 분석을 통한 비교로 인해 노인일자리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를 검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전·후를 종단적으로 연구를 통한 비교·검증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다양한 노인의 삶의 변화, 심리적 복지감의 변화 등을 측정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나아가 노인일자리사업유형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성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고승덕·조숙행(1997).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인 추출. 한국노년학회지, 17(2), 17-36.
- 2) 곽인숙(2011). 예비노인과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9(1), 107-120.
- 3) 곽인숙·홍성희(2013).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 설계 인식과 준비도: 전·후기집단 비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2), 147-172.
- 4) 권구영·최정민(200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과 삶의 질 간의 관계-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8, 51-77.
- 5) 권치영·김선웅·임중철·이홍직(2007). 일자

- 리 참여가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7(2), 427-443.
- 6) 김미혜(2000). 고령자 취업 적합 직종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7) 김병덕·이석호(2011).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
- 8) 김소향·이신숙(200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1), 309-327.
- 9) 김수영·이민홍·장수지(201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심리사회적 건강 변화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64, 371-393.
- 10) 김수원·한애리·이소정(2012). 퇴직전문인력의 사회공헌일자리 활용 활성화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1) 김애련(2001).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2) 김제선·김선웅(2014).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베이비부머의 일 지속성 요인.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3(2), 73-88.
- 13) 김진욱·손지윤(200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도와 참여지속의사에 관한 연구 :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4), 1295-1311.
- 14) 김효정(2008). 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인식과 만족에 따른 생활변화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5) 남기철(2012).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향과 쟁점. 제 20차 노인일자리 전문가포럼 자료집, 1-28.
- 16) 남기철·이문국·조성은·강성추·조준행(2008). 노인일자리사업 중장기 발전전략.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17) 박영미·김병규(2015).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27(1), 243-264.
- 18) 백선숙(2005). 여성독거노인의 삶의 질 모형

- 구축.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9) 보건복지부(2014). 2014 OECD 건강정보 통계.
 - 20) 보건복지부(2014).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 21) 손화희(2014).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인식 및 자원봉사 태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9(4), 715-729.
 - 22) 신성일·김영희(2013). 노인의 삶의 질에 관련된 변인들의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4(6), 3673-3690.
 - 23) 이동호(2011). 노인들의 질환별 유병여부와 건강관련 삶의 질 구조모형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1), 216-224.
 - 24) 이소정(201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노인의 사회관계에 미치는 효과 분석. 노인복지연구, 59, 331-354.
 - 25) 이지영·성도경(2014). 노인고용서비스 전달 체계 효과성이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도·농간의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8(2), 69-92.
 - 26) 정명숙(2007).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노인복지연구, 37, 249-274.
 - 27) 정순달·이은주(2005). 자원봉사활동 특성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면 접촉과 비대면 접촉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5(4), 219-233.
 - 28) 지은구(2009). 노인일자리사업 정착을 위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사회과학논총, 28(1), 357-410.
 - 29) 초의수·강수영(2008).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자아존중감·자기효능감 영향요인에 한 연구-부산지역 노인복지기관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16(3), 15-35.
 - 30) 통계청(2013). 고령자 통계.
 - 31) 하경분·주민경(2013). 농촌노인의 일자리사업 참여실태와 만족도 및 요구도에 관한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20(4), 1149-1179.
 - 32) 하세윤·이현미(2013).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33) 한석태(2008). 노인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객관적 변수와 주관적 변수의 비교. 한국행정학보, 42(3), 441-461.
 - 34) 홍석관(200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과 비참여 노인의 자기효능감과 우울 비교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투 고 일 : 2015년 10월 1일
- 심 사 일 : 2015년 10월 19일
- 게재확정일 : 2015년 11월 17일